“과잉생산 쌀 40만t 정부가 전량 매입해야”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쌀값 안정화 대책 촉구…도의회 “농가 생존권 위협, 대책 마련을”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26일 민선6기 후반기 첫 회의인 제11차 정례회를 열고 폭락하는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열린 정례회에서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 확충, GAP 인증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허용, 어업지도선 기관 교체사업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또 협의회 재정확보 및 축·조의금 기준 정비, 협의회와 지방자치TV 및 보해양조 업무협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1야당의 광주·전남 국회의원 배제 관련 우리의 입장 성명서 채택, 안보정책 분야 임기제 공무원 채용 검토 등을 협의했다.

특히 올해 공급 과잉으로 인한 쌀값 폭락 현상을 우려하고 40만t의 쌀을 정부에서 전량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전남에서 열리는 풍성한 가을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지자체간의 교류·협력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격월제로 개최하며 제12차 연말 정기총회는 화순에서 열기로 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이 26일 보성 다비치콘도 11차 정례회를 열고 정부에 쌀값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전남도의회도 이날 본회의를 열어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조생종 나락은 산지에서 40kg 포대당 4만원선이 무너지고 쌀값도 작년보다 15% 이상 하락해 농가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을 확대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실효적 종합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어 “쌀의 가치와 중요성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어 쌀값이 계속 폭락하고 있다”며 “정부는 농가 경영안정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

원전 지역 지질조사 국회 건의

영광 등 지자체, 고준위 폐기물 건식저장 등 대책 마련 촉구

전남 영광을 비롯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회장 오규석 기장군수)는 26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과 원전 주변 지역 정밀 지질조사 등 원전소재 지자체 현안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행정협의회장인 오 군수는 지난 5일 개최된 제19차 원전소재 행정협의회(영광군,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울진군)에서 의결한 대정부 건의문을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2020년까지 원전 이외 지역에 관리시설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원전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단기저장 신규 설치(건식저장시설)는 절대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전소재 5개 지역을 대표해 지자체장 또는 지자체에서 추천한 자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원전 내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관해 정당한 보상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도 있다.

경주 지진 이후 원전 주변 주민 불안과 관련, ▲ 양산 활성단층 지질조사 결과 정보공개 청구 ▲ 원전 지역 활성단층 유무 정밀지질 조사용역 ▲ 전문가 주민참여 원전 안전점검 ▲ 청와대 상황실·국민안전처·원전소재 지자체 핫라인 구축 등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의 건의사항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오 군수는 “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재난 등 만약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월성원전과 고리원전 주변 지역인 양산 울산 단층을 중심으로 연구한 활성단층 지도와 지진위험지도가 필요하다”며 “원전 사업자의 자체점검(셀프점검)은 더는 신뢰할 수 없어 국내외 전문가, 지자체 대표,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안전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재로서는 원자력발전을 당장 그만둘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근 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최대한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설마설마하다 사고가 날 수 있고 원전만큼은 절대 사고 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연합뉴스

군대도 쌀 소비 줄었다

지난해 하루 반공기 덜 먹어
군 당국 급식량 조정 검토

국군 병사들의 쌀 소비가 갈수록 줄면서 군 당국이 급식량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병사 1인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344g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평균 쌀 소비량(172.4g)의 2배에 달하는 양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쌀 소비 감소 분위기에서 군도 예외는 아니다. 작년 병사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전년(352g)보다 8g 줄었고, 5년 전인 2010년(412g)에 비해서는 68g(16.5%)이나 감소했다. 보통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이 100~120g인 점을 고려하면 5년 새 하루 평균 반 그릇 이상 쌀 소비량이 감소한 것이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쌀 소비가 계속 줄자 지난 2012년부터 1인당 하루 쌀 급식 기준량을 570g에서 400g으로 대폭 줄였지만, 소비량은 여전히 이를 15% 정도 밑돌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5년 만에 기준량을 다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쌀 급식량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내년부터 쌀 급식 기준량을 400g에서 10% 감소한 360g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도 쌀 소비량이 급식 기준량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쌀 구매비의 일부를 부식비로 돌려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기준량에 반영해 현실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희 의원은 “신세대 장병들의 식습관 변화로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낭비되는 쌀이 없도록 급식 기준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쌀을 활용한 맛있는 급식품목을 다양하게 개발해 농민들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연합뉴스

광주 인권증진시민위 출범…이주민 등 참여 현장성 강화

광주시는 시민의 인권증진과 인권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제3기 ‘인권증진시민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시청 세미나실에서 제3기 위원회 위촉식과 위원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위원 위촉장 수여, 민간인 공동위원장 선임 및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권정책과 인권현안 소개,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제2기 위원회 활동보고와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인권도시 육성 및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추진 등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인권정책의 자문·심의를 하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시장과 민간인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인권단체, 시민단체, 시의회, 국가인권기관 등의 추천을 통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이주민 인권분야의 바수무쿨, 다문화 인권분야의 이향란씨, 청소년 인권분야의 이경은씨 등 인권 당사자가 시민위원으로 위촉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도시숲 현장 포럼 개최

광주시는 ‘제2회 도시숲 현장 포럼’이 2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푸른길공원에서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시민참여 도시숲 운영의 현황과 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포럼은 국립산림과학원과 사단법인 생명의 숲 국민운동이 주최하고, 산림청이 후원한다.

도시숲 조성과 관리에 대한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도시숲 현장 포럼은 지난해 서울숲에서 제1회 포럼을 열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푸른길공원 조성과 관리 사례의 우수성을 전국에 전파하고 시민참여를 이끌기 위해 광주를 포럼 개최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개회사와 축사, 도시숲 현장체험, 주제발표, 푸른길공원 답사 순으로 진행된다. 5·18자유공원에서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도시숲의 열섬완화 효과에 대한 현장체험과 푸른길 답사도 한다.

푸른길 공원은 광주 동구 계림동에서 남구 진월동까지 경전선 폐선 부지(8㎞)에 30만여그루의 나무를 심어 공원을 조성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함평 상곡리 초기 철기시대 고분서
청동 거울모양 동기 4점 등 유물 출토

함평군 상곡리 개인주택 신축부지에서 초기 철기 시대 인근 국가와 활발한 문물교류를 입증하는 청동제 거울모양동기(鏡形銅器·사진) 4점이 출토됐다. 거울모양동기는 청동기~초기 철기 시대 몸 앞에 매달아 빛을 반사시키는 장신구다.

한국문화재재단은 26일 문화재청의 위탁을 받아 상곡리 일대(790㎡)에서 소규모 정밀 발굴조사를 추진한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초기 철기시대 석관묘 등 유구 21기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거울모양동기는 초기 철기 시대 석관묘 1호에서 발견됐다. 4점 모두 크기(6.4×6.2cm)와 형태가 같아 동일한 틀을 이용한 밀납주조 방식으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동문화가 앞섰던 중국 동부에서 주로 유행했던 것으로 무덤 피장자가 당시 지역사회 유력자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와함께 청동기 시대 토광묘(지하에 수직으로 네모난 구덩이를 파고 시체를 매장하거나 목관을 사용한 묘) 1기, 주거지 2기, 구상유구(고랑 모양의 터) 1기, 초기철기 시대 석관묘 4기와 주구(무덤 주변의 도랑) 1기, 삼국 시대 주구 1기 등 모두 21기 유구가 확인됐다.

삼국 시대 주구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는 제사를 지내면서 항아리 등을 일부러 깨뜨린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백제 조족문(새발무늬) 토기와 함께 일본 구주지역 스에키계 개배(뚜껑이 있는 접시), 가야의 파상점열문(위아래는 물결무늬가 있고 가운데는 점 무늬가 있는 토기) 항아리가 한꺼번에 나왔다.

한국문화재재단 관계자는 “함평 상곡리 유적은 통해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백제 중앙과 대가야, 멀리는 왜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교류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

사람을 찾습니다

실종 당시 모습

• 162cm의 야윈 체격, M자형 대머리, 목 뒤에 강낭콩 크기만한 혹이 있음
• 가슴, 배, 머리에 수술자국이 있음
• 실종 당시 삼정게이트볼 글자가 자수로 놓인 검은색 챙, 뒷면은 흰색인 모자를 쓰고, 상의 모시 옷깃이 없는 반팔에 곤색 망사 주머니가 있는 조끼, 하의 검은색 바지, 흰색 바닥에 검은색 나이키 운동화를 신음
• 3차례 암수술과 오랜 투병생활로 치매증상 있으며 체력저하로 보행이 불편하고 청력이 약함
• 심한 통증을 호소할 수 있음(평상시에 약을 못드시면 잠도 제대로 못주무셨음) 갑자기 통증이 있을시 깜짝깜짝 놀라시기도 함

실종일시 : 2016년 8월 3일
실종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지구 중흥아파트 정문 인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아빠 좀 찾아주세요!!

최규복님 아들 최현성
010-5113-6582

혈당조절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ATP10골드 대한민국특허 제0522532호
ATP10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기력)을 10배높인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넘쳐나는 포도당을 60조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 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당뇨특허 2건 등록!
• 회사창립 20주년 감사 사은행사로 본제품을 구매하신 모든분께 황칠삼채여주진액 1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우송※
010-3598-7080

20년 전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동구 금남로 3층근린시설 우리은행빌딩 코너위치 대로변 건물250평 토지171평 ▶ 감정가 21억3천 최저가 18억7천만원
● 서구 광천동 5층건물575평 대지223평 신세계사거리코너 투자가치, 건물상태좋음(2003년식) ▶ 감정가 41억6천만원
● 서구 벽진동 주택47평 대지176평 주변환경, 투자가치 1종일반주거지역 ▶ 감정가 2억4천만원 최저가 2억4천만원
● 서구 쌍촌동 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 대지499평 투자적합 토지 222평 준주거지역 ▶ 감정가 11억9천 최저가 8억3천
상가.토지.병원.사옥.창고부지 매매상담
● 서구 치평동 상가10층중 10층 건물146평 토지26평 롯데마트사거리, 전망좋음 ▶ 감정가 8억8천 최저가 5억원
● 장성군 황룡면 2층주택 64평 대지 35평 주변환경 좋음 투자가치, 건물상태좋음 ▶ 감정가 1억1천4백 최저가 8천만원
● 담양군 대덕면 토지 1014평 전원주택지지 및 농지포함 투자가치, 주변환경좋음 ▶ 감정가 4천6백 최저가 4천6백
● 북구 두암동 대주빌라 3층중 3층 건물40평 대지46평 주변환경좋음 ▶ 감정가 2억5천만원 최저가 1억7천2백
급매 광산구 하남3지구 8차선 대로접 상업지역 대지132평 전면넓음, 상권최상 프랜차이즈상담환영 ▶ 거래가18억(조정가)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수강생 모집
DIY 목조주택 혼자짓기
이동식 목조, 펜션, 농막

동영상 이론과 실습
광주대학교 호심관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7시~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7시~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7시~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